



채널A 예능프로그램 '펜트하우스'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개미가 타고 있어요'(왼쪽부터)가 경제, 주식투자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소재들을 내세워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다. 사진제공 | 채널A·티빙

연예뉴스 HOT 5

영화 '한산: 용의 출현' 99개국에 판매



영화 '한산: 용의 출현'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 미국·일본·프랑스·중국·대만·베트남·싱가포르 등 99개 나라에 판매됐다. 27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화는 29일 미국, 8월 4일 호주와 뉴질랜드, 8월 19일 대만에서 개봉한다. 다른 나라의 개봉일지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영화는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조선 수군과 왜 수군의 전투를 그린다. 2013년 1761만 관객을 모은 '명량'의 속편이다. 박해일, 변요한, 김성규 등이 출연하며 김한민 감독이 연출했다.

BTS '프루프', 빌보드 200 5주째 상위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장기집권'하고 있다. 27일(한국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차트(30일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는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37위에 올라 5주 연속 차트 상위권을 유지했다. 또 '월드 앨범' 4위, '톱 커런트 앨범' 16위, '톱 앨범 세일즈' 19위에도 올랐다. 같은 날 이들은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히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안무' 등 4개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8월 28일 미국 뉴저지주 프루덴셜센터에서 열린다.

에스파, 30일 올림픽공원서 첫 팬미팅

걸그룹 에스파가 2020년 11월 데뷔 이후 처음으로 팬미팅을 연다. 27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마이 싱크, 에스파'(MY SYNK, aespa)를 개최한다. 소속사는 "공식 팬클럽 '마이'를 위해 특별 오픈한 '에스파 마켓'이라는 콘셉트로 행사를 꾸민다"며 "다채로운 코너를 통해 팬들과 가깝게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스파는 '블랙맘마', '넥스트 레벨' 등 8곡의 무대도 선보인다. 팬미팅은 해외 팬들을 위해 '비온드 라이브'로 생중계한다.

비비,韓뮤지션 유일 '유튜브 파운드리' 참여



가수 비비가 유튜브의 신진 아티스트 개발 프로그램 '2022 파운드리(Foundry)' 라인업에 포함됐다. 한국 뮤지션으로는 유일하다. 27일 유튜브에 따르면 비비는 전 세계 15개 국가 30팀의 아티스트와 함께 '2022 파운드리'에 참여한다. 2015년부터 열린 '파운드리'는 워크숍 형태로 아티스트들의 독립적인 음악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두아 리파, 알로 파크스 등 해외 팝스타들이 거쳤다. 비비는 "파운드리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해외에도 제 음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소희' '특송' 판타지아국제영화제 수상

영화 '다음 소희'와 '특송'이 제26회 캐나다 판타지아국제영화제에서 각각 감독상과 심사위원 특별인정상을 수상했다. 27일(한국시간) 수상작을 발표한 영화제 측은 '다음 소희'에 대해 "10대 소녀들을 다 쓰고 버리는 잔인한 시스템을 묘사한다"고, '특송'은 "훌륭한 연출과 편집이 한순간도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다음 소희'는 플랫폼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고교생 소희(김시은)의 이야기를 담는다. '특송'은 배달기사 은하(박소담)가 배송사고에 휘말리며 벌어진 추격전을 그린다.

방송가는 지금 '재테크 콘텐츠 전성시대'

경제 불안정속 재테크 관심 높아져 채널A 예능 '펜트하우스' 인기몰이 치열한 대출·경매 서바이벌 흥미 티빙선 드라마 '개미가...' 8월 첫방

'동학개미운동', '비트코인 대란'... 경제뉴스에서나 볼 법한 용어들이 예능프로그램을 넘어 드라마에서까지 등장하고 있다.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감염병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사이 시청자 관심 역시 관련 이슈로 쏠린 까닭이다. 이 같은 흐름을 발 빠르게 반영하는 콘텐츠가 방송가에 쏟아지고 있다.

●'리얼'한 주식시장 반영

요즘 젊은 세대에게도 관심의 대상인 주식을 소재 삼은 드라마가 잇달아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 앞서 JTBC '클리닝업', tvN 단막극 '스톡 오브 하이스쿨'에 이어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개미가 타고 있어요'가 8월 12일부터 공개된다. 한지은·홍중현·정문성·김선영·장광이 저마다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소규모 개인투자자를 뜻하는 '개미'들의 사연이 최근 주식시장 세태와 어우러진다. 암호화폐, 부동산 경매 등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된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치열한 거래 과정을 핵심으로 한 '800억 소년'(가제),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 경매에 뛰어드는 내용인 '루나의 전세역전' 등이다. '경제교육'을 표방하는 KBS 2TV '자본주의학교'와 자산 경매의 치열한 현장을 소재로 새로운 포맷을 내세우는 채널A '펜트하우스' 등 예능프로그램도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돈에는 누구나 관심 많아'

과거 경제 관련 소재가 시청자에게는 다소 지루하고 어렵게 다가갈 것이라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이다. '펜트하우스'를 연출하는 김남호 PD는 27일 "누구나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도 있다"면서 "그만큼 시청자의 몰입을 빠르게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을 소재로 한 '개미가 타고 있어요'의 제작 관계자도 "최근 10대 5명 중 1명은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올 만큼 주식 입문 연령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연령대 시청자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소재"라고 밝혔다.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만한 실제 사례가 많다는 점도 방송가가 주목하는 이유로 꼽힌다. 한 드라마 제작 관계자는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을 각색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저마다 관련 소재를 선점하기 위해 기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세븐틴 '드높은 위상'...美 MTV VMA 3개 부문 후보에

'빌보드 200' 7주 연속 순위에 올라 7개 음반 연달아 '밀리언셀러' 달성 '월드', 28개국 아이튠즈 톱송 1위도

'세븐틴의 시대'가 왔다. 멤버 13명이 만들어내는 갈 군무와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하는 음악적 역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세븐틴이 국내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최근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케이팝 시장에 생긴 빈자리를 세븐틴이 꽉 메우며 케이팝 그룹 최정상 자리에 우뚝 섰다. 특히 이들은 2015년 데뷔해 올해 데뷔 7주년을 맞아 지난해 멤버 전원이 전속계약을 연장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질주할 태세를 갖췄다. 세븐틴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유명 음악 시상식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VMA)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4개 부문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에 이어 최다



후보이다.

이날 MTV에 따르면 세븐틴은 '베스트 뉴 아티스트', '올해의 푸시 퍼포먼스', '베스트 K팝' 등 후보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베스트 K팝' 부문 후보에 처음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글로벌 위상 등으로 데뷔 이래 가장 많은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수상 기대를 높이고 있다.

빌보드 차트에서도 꾸준한 인기로 차트에 머물고 있다. 이날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30일자) 메인 앨범 '빌보드 200'에서 187위를 차지했다. 5월 정규 4집 '페이스 더 선'(Face the Sun)을 발표한 후 7주 연속 순위인 7위로 차트에 진입한 후 7주 연속 순위에 올랐다.

국내 기록도 눈에 띈다. 세븐틴은 7개

음반 연속 '밀리언셀러'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와 음반 판매량 집계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세븐틴은 18일 발표한 정규 4집 리패키지 음반 '섹터 17'(SECTOR 17)을 총 112만 6104장(27일 집계 기준)이나 팔아치웠다.

이로써 2019년 발표한 정규 3집 '언 오드'(An Ode)를 시작으로 일곱 번째 미니 음반 '헝가레', 스페셜 음반 '세미콜론'([Semicolon]) 등 총 7개 음반이 '밀리언셀러'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소속사 측은 "발매 첫날에만 93만 5138장이 판매된 데 이어 발매 3일 만에 '밀리언셀러'를 달성했고, 세븐틴이 케이팝 가수 중 리패키지 음반으로 '초동 밀리언셀러'(음반 발매 첫 주 판매량이 100만 장 기록)를 달성한 유일한 그룹"이라고 강조했다. '섹터 17'의 타이틀곡 '월드'(WORLD)는 28개 국가에서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정현 기자 annjoy@donga.com

예능 섭외 1순위 '모델테이너'가 대세

(모델+엔터테이너)

이현이, 고정 출연 프로그램만 4개 송해나는 AXN '극한초보' MC 맡아

방송가에 다시 한번 '모델테이너'의 붐이 일고 있다. 모델테이너는 모델과 엔터테이너를 합성한 신조어로 모델 출신 방송인 이소라를 시작으로 2세대 장윤주·한혜진 등에 이어 이현이·송해나·정혁·주우재

등이 방송가를 누비면서 인기를 다져가고 있다.

각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은 국내외 다양한 무대로 쌓은 이들의 노련함과 적극성에 주목해 출연 섭외 1순위로 올려놓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현이는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SBS '골 때리는 그녀들',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이어 8월 3일 첫

방송하는 SBS '연애는 직진'까지 무려 4개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출연 중이다. 공연에 대한 평소 관심사를 살려 최근에는 AXN '공연에 반하다'도 진행하고 있다.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으로서 육아, 토크쇼 등 다양한 소재로 활동 영역을 확장 시킬 계획이다.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송해나도 26일부터 AXN '극한초보'의 진행자로 나섰다. 솔직하고 화끈한 입담을 앞세워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나는 솔로' 데프콘, '극한초보' 이수근 등 함께 호흡을 맞추는 배

태랑들은 "독특 튀는 발랄함"을 장점으로 꼽으며 극찬했다. 예능 활동에 대한 호기심도 커서 소재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혁은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를 무대삼아 이름값을 올리고 있다. '네고왕', '로또왕' 등을 만든 유튜브 콘텐츠회사 달라스튜디오와 함께 27일부터 '대결왕'을 내놓는다. 다양한 주제로 자연, 사물 등 각종 상대와 대결을 펼치는 내용이다. 젊은 세대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연예 소재인 MBC에브리원 '다시, 첫사랑'도 방송인 김신영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